

연기 도전 늘 무섭지만 동료들 믿고 날 던지죠

우연히 99억원을 손에 쥔 캐릭터 힘든속 속 대범한 매력에 푹 빠져 내 능력 이상의 연기...동료들 덕

배우 조여정(38)이 지나가는 한 해의 성과를 등에 업고 새롭게 다가오는 또 다른 한 해의 문을 활짝 연다. 4일 첫 방송하는 KBS 2TV 수목드라마 '99억의 여자'를 통해 올해의 끝과 내년의 시작을 함께 하며, 5월 영화 '기생충'으로 얻은 배우로서 최고의 순간을 안방극장으로 이어갈 기세다.

정작 그에 관한 각오를 밝히는 조여정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1997년 잡지 모델로 데뷔하고 20여년 활동해온 경험과 노하우 속에서는 자신감이 엮여 있었다. 뜬금없는 모습에서 오히려 '소리 없이 강한' 베테랑의 포스까지 물씬 풍겼다.

조여정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99억의 여자' 제작발표회에서 "매 순간 연기하는 자체가 부담스럽다"면서도 "제작진과 동료들이 있기에 제가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도전은 늘 무섭지만 동료들 믿고 저를 던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저는 제 연기가 아쉬운 정도를 떠나 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웃었다.

그의 이번 도전은 "이렇게까지 힘든 삶은 어떤 것일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했다. '99억의 여자'는 우연한 기회에 현금 99억 원을 손에 넣은 여자의 이야기로, 조여정은 이 돈으로 불우한 가정 환경과 폭력적인 남편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처절한 운명의 인물을 맡았다. 복잡한 캐릭터 설정을 매끄럽게 그려낼 섬세한 감정 표현에 대한 기대가 높다.

▶올해 영화 '기생충'으로 뜻 깊은 성과를 거둔 배우 조여정이 드라마 '99억의 여자'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3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그는 "도전은 늘 무섭지만 동료들을 믿고 날 던진다"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조여정은 "힘겨운 삶을 담담하고 대범하게 마주하는 캐릭터에 매력을 느껴 연기하고 싶었다"며 "저를 통해 절망 끝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작지만 희망과 위안을 받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시간대 방송된 '동백꽃 필 무렵'의 높은 인기를 이어가는 부담감도 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시선을 보였다. 그는 "이 드라마가 많은 사랑을 받은 건 다음 주자로서 기본이 좋은 일"이라며 "결이 달라 시청자가 다양한 재미를 느끼며 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조여정을 향한 축하 세례도 쏟아졌다. 동료들과 취재진은 5월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기생충'의 주역으로 최고 권위의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레드 카펫을 밟은 기억을 떠올렸다. 지난달 21일에는 제40회 청룡영화상에서 데뷔 첫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을 축하했다. '99억의 여자'의 남편 역인 정은인은 "얼굴도, 손도, 발도 작은 배우가 너무나 큰 배우가 됐다"며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더 긴장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에 화답하듯 조여정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으로 "배우는 혼자 있으면 불안전하고 미완성의 존재이지만 제작진,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며 "지금도 발전하기 위해 힘겹게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며 결의를 다지는 듯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조여정
 ▲1981년 2월10일생 ▲1999년 동국대 연극영화학과 졸업 ▲10대 시절 잡지 모델 ▲1996년 MBC '남자셋 여자셋'으로 데뷔 ▲2004년 MBC '조선에서 왔소이다' 주연 ▲2009년 KBS 1TV '집으로 가는 길' ▲2010년 영화 '방자전' 주연 ▲2016년 KBS 2TV '베이비시터' 등 ▲2019년 영화 '기생충' 등



연예뉴스 HOT 3

이윤미, SNS로 피싱 피해 주의 당부

배우 이윤미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피싱 피해를 당할 뻔 했다고 털어놨다. 이윤미는 3일 SNS에 "피해 없길 바란다"며 "제 프로필 사진이 그대로 도용돼, 얼마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가 왔다"며 "엄마랑 딸인 관계를 어떻게 알았을까. 혹시 이상한 문자에 속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윤미는 휴대전화 메시지 프로필 화면 이미지를 첨부하고 도용된 이미지도 공개했다.

바이브 "음원 사재기 의혹 사실 아냐"

가수 바이브가 음원 사재기 논란에 추가 입장문을 냈다. 바이브의 소속사 메이저나인은 3일 "바이브(VIBE)를 향해 제기되는 음원 사재기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바이브는 "의혹을 소명하고자 11월24일 사재기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블라비 박경의 소속사에 '사과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지만 '계시물은 삭제했지만 사과하는 힘들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프듀 조작' 안준영 PD 등 8명 기소

검찰이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의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안준영 PD와 김용범 책임프로듀서, 기획사 관계자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이영림)는 3일 김용범 책임프로듀서와 안준영 PD를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프로그램 보조 PD A씨를 업무방해·사기 혐의로, 아이돌 기획사 임직원 5명을 배임증제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프로듀스 101'이 데뷔조 11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생방송 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특정 기획사 소속 아이돌이 뽑히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11월14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이들 8명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여왔다.

편집 | 김태권 기자 bong82@donga.com

희소식 무릎이 불편해서 고생하시는분~

- ▶ 며칠 차고있어 보니 부드럽고 시원해서 좋구나!
- ▶ 무릎이 편하면 만사가 즐겁고 행복하다!



착용해보니 그것참 신통하구나!

불편한 무릎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생체(生體)에너지 무릎밴드 참 무릅팩엔이 출시되어 무릎이 불편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천연광물질에서 다량의 파장이 방사 및 방출되며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무릅팩엔에는 4가지 광물질(젤라이트, 그라파이트, 질보석, 의료용 자석)이 침착되어 있으며 그중 그라파이트는 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 이상 팽창시킨 물질로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의 30배에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고가 신소재이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무릎에 착용하여 생활해보시면 시원하고 기쁜 마음을 느낄 것이며 가볍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걸음 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고 활동성이 좋아 누구나 일상생활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무릎이 편안하면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불편한 무릎을 위하여~
 상담문의: 무릅팩엔 1670-5467

평범하지 않은 중년을 위한 주름개선 미백크림 와~ 주름개선 정말 좋구나! 바로고 확인해보세요

주름이 없어야나이가어리게 보입니다. 나이보다 젊어보인다는 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부러움의 시선을 느끼게 되고 마음의 힘이 됩니다.



어떤 명품크림들과 피부가 고우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번더 쳐다보다 비교하셔도 좋습니다! 상담문의: 주름개선 황칠크림 1600-2865

허리가 불편해 고생하시는분~

- ▶ 허리건강 비밀은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 ▶ 며칠 착용해보니 그것 참 좋구나!



착용해보시고 확인하세요!

전기 없이 스스로 체온과의 열교환으로 발열되는 허리따씨 발열밴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4가지 광물질(젤라이트, 그라파이트, 질보석, 의료자석 등) 중 그라파이트라는 신소재는 천연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이상 팽창시킨 물질이며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보다 30배,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물질이고 불편한 허리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밝혀 줄 것이다. 또한 가볍기 때문에 걸음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게 착용할 수 있어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허리가 편하면 만사가 편하다!
 불편한 허리를 보호해주는~
 상담문의: 허리따씨1600-1047